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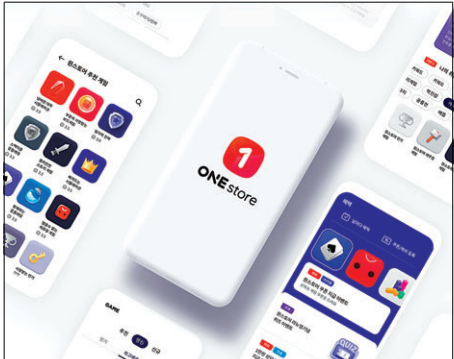
SK쉴더스·원스토어 “최적 시점에 상장 재추진”

증시 불안 속 투심 급격하게 위축
“기업가치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
현대엔지니어링 등 상장 속속 연기
“IPO 흑한기…한동안 이어질 수도”

SK스퀘어의 자회사 원스토어가 SK쉴더스에 이어 상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금리인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증시가 불안해지면서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장을 추진기로 한 SK스퀘어 다른 자회사들의 IPO(기업공개) 전략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 상황 고려해 추진”

토종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원스토어는 11일 상장 철회를 공식화했다. 9일 간담회를 통해 “상장 철회는 없다”고 단언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원스토어 측은 “이번 IPO 과정에서 대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상장을 철회하기로 한 원스토어의 앱마켓 서비스. 사진제공 | 원스토어

다수 기관투자자로부터 원스토어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면서도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 가치를 온전히 평가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점에 상장 추진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스퀘어의 또 다른 자회사 SK쉴더스도 앞서 6일 상장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SK쉴더스는 사이버 보안 기업 SK인포섹과 물리보안 회사 ADT캡스를 합병해 출범한 보안 전문기업이다.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 위축

SK스퀘어 자회사들의 잇단 상장 철회는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이 예상보다 저조한 성과를 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증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탓이다. 원스토어 측도 “지난 수 개월간 상장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장을 철회한다”고 설명했다. SK쉴더스가 밝힌 이유도 비슷하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IPO 시장에서 몸값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워지면서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두 회사 이외에도 현대엔지니어링과 테림페이퍼 등도 상장을 미뤘다.

업계는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금리인상과 전쟁 장기화 등으로 경기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IPO 흑한기가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올해 상장을 준비 중인 컬리와

현대오일뱅크, CJ올리브영 등도 IPO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IPO 등을 통해 자회사들의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겠다는 SK스퀘어의 목표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1번가와 티맵모빌리티 등 다른 자회사들의 IPO 일정 등 전략 수정이 일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스퀘어는 SK쉴더스와 원스토어 등 자회사의 연이은 상장 철회에 지난 12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다만 IPO 외에 해외 진출 등 다른 성장 전략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상장을 철회한 원스토어의 경우에도 최근 ‘유럽판 원스토어’ 구축을 위해 독일의 도이체텔레콤과 조인트 벤처 설립 및 양사 자본 투자 등을 포함한 협력을 추진기로 했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으로의 성장성을 실현시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더욱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위메프, 패션 플랫폼 ‘브랜드’ 할인 등 혜택



위메프는 16일부터 29일까지 패션 플랫폼 브랜드와 함께 제휴 이벤트(사진)를 진행한다. 양사는 각 플랫폼에서 제휴 플랫폼의 할인, 포인트 혜택을 제공한다. 위메프 쇼핑 혜택은 브랜드 앱에서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1시 브랜드 ‘페스티벌 룩 추천’ 페이지를 방문한 이용자는 위메프 1000 포인트를 선착순으로 받는다. 위메프 앱에서 ‘페스티벌 티켓’ 판매 페이지에 접속하면 브랜드 10% 할인 쿠폰을 상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쿠폰 유효기간은 29일까지며,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쿠팡, 프리미엄 숙박상품 모은 테마관 론칭

쿠팡이 프리미엄 숙박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쿠팡 트래블 프리미엄’을 론칭했다. 5성급 이상 프리미엄 호텔 상품을 선보이는 테마관으로, 여행 상품 전문 카테고리 ‘쿠팡 트래블’에서 상시 운영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제주관광협회 공식 5성급 호텔인 비스타 위귀힐 서울,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 하얏트 제주 등을 포함한 프리미엄급 숙소들을 한 눈에 만나 볼 수 있다. 쿠팡은 ‘자진 일상에 선풍을 켜줄 단 하나의 휴식’이라는 콘셉트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안전하면서도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숙박 상품을 매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티몬, 은퇴 경주마 지원 ‘소셜기부’ 개최

티몬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경주마들이 은퇴한 이후에도 건강하게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소셜기부’를 24일까지 개최한다. 2000원부터 1만 원까지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경주마의 복지 및 처우 개선과 함께 방송 촬영 동물 복지 가이드 수립 등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수수료와 사업비를 일절 제하지 않고 전액 전달하며 사용내역은 추후 선보일 소셜기부에서 상세하게 공개한다. 후원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이벤트도 펼친다. 은퇴 경주마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남긴 10명을 선정해 귀여운 동물 그림이 새겨진 ‘동물자유연대 리유저를 줍’을 선물한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갤Z플립3 무직타이거 에디션’ 삼성전자 오늘부터 한정 판매

삼성전자는 16일 ‘갤럭시Z플립3 무직타이거 에디션’을 한정 판매한다. 무직타이거는 ‘직장을 떠나 원하는 일을 하는 자유로운 삶을 지향, 응원’하는 콘셉트의 캐릭터 디자인 브랜드다. 대표 캐릭터인 ‘퐁랑이’가 MZ세대에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패키지는 갤럭시Z플립3 단말기, 클리어커버, 키링과 그림통 등 무직타이거 액세서리로 구성돼 있다. 에디션의 가격은 128만 400원이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G마켓, 옥션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파손 보상, 수리비 즉시 할인, 방문 수리까지 가능한 토탈 케어 서비스 ‘삼성케어플러스’ 파손 보장형 1년권을 추가 제공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Z플립3’ 컬래버 에디션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추후에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3 무직타이거 에디션’.



16 대 18 화면비로 다중 작업에 편리한 ‘LG 듀얼업 모니터’를 위아래로 분할해 문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LG전자

“멀티태스킹에 최적화”…LG 듀얼업 모니터 출시

세로로 길어 스크롤 없이 ‘한눈에’ 영상편집·디자인 작업 등에 최적

LG전자는 새로운 폼팩터(하드웨어 형태)를 적용한 ‘LG 듀얼업 모니터’(28MQ780)를 국내 출시한다. 28인치 나노IPS 디스플레이에 16 대 18 화면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16 대 9 화면비의 21.5인치 모니터 2대를 위아래로 붙인 크기로, 일반 모니터보다 세로로 더 길어 스크롤 없이 한 화면에 보다 많은 정보를 보여준다.

PC 두 대를 동시에 연결해 한 화면에 두 대의 PC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PBP’(Picture by Picture)와 하나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연결된 PC 두 대를 번갈아 가며 조작할 수 있는 ‘KVM’(Keyboard Video Mouse) 스위칭 기능도 적용했다.

신제품은 또 LG 360 스탠드를 장착해 화면을 가로 90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피벗’과 좌우로 335도까지 돌릴 수 있는 ‘스위블’을 지원한다. 최대 165mm 범위 내에서 높이 조절도 가능해 사용자 자세에 맞춰 화면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 가

능하다.

화면을 위아래로 분할해 영상편집 작업을 하는 유튜브나 많은 코드를 스크롤 없이 한 번에 확인해야 하는 프로그래머, 여러 작업물을 동시에 띄워놓고 검토해야 하는 디자이너 등 멀티태스킹 작업이 많은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것이 LG전자 측 설명이다. 온라인브랜드샵(OBS)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에서 16일부터 판매하며 이후 LG메스트샵을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출하가는 99만 원이다.

김명근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6일 (월) 음력: 4월 1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윽고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어린 싹은 봄이란 계절과 강렬한 생명력과 풍부한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 견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직업이나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취업시험 합격과 먼 곳과의 거래성사가 있는 날이다.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길하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끈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질적으로는 손해지만 나중에는 이익이 되어 돌아온다. 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서 협력을 구하라. 사방이 위협으로 막혀있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시기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에 모험을 피해야 하며 내부의 정리에 힘써야 할 때이다. 음주가무를 피하라.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좌충우돌하다가 가는 뜻대로 되지 않는 수가 많다. 애매한 전망으로 일을 시작하다보면 반드시 중도에 좌절하게 될 것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민둥산에 심어진 묘목들이 점차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은산을 초록으로 덮는 것처럼 점진적 발전을 할 때이다. 서서히 나아가는 것이다. 급격한 성장은 바람 수 없으나 착실하게 순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매사 일희일비 하다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진행 중인 일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교제비를 많이 쓸 수도 있다.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모든 일에 과감하게 나아가지만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쉬운 때이다. 지출이 많을 때이니 되도록이면 저축에 힘써라. 너무 밀고나아가면 상대가 움츠러든다. 상대가 먼저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전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합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바라지 말라. 무슨 일에도 있어서나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물질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 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사가 흥통하는 운이나 큰일을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길할 것이다. 모든 일에 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재해를 입기 쉬운 때이므로 특히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82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